

지지율 고작 6%...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개혁신당

당 색깔 놓고 공동대표 이준 이준석계·이낙연계 '설전' 합당 여론조사 놓고 진실공방 의원 채워 보조금 '구태'까지

여야 탈당파 등 4개 세력이 힘을 모은 개혁신당이 출범과 동시에 당 안팎으로 각종 내용을 쥐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고, 당색(黨色)을 놓고 이낙연계와 이준석계가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합당에 반대한 기존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여론조사업체 에이시리서치에 따르면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만일 내일이 4월 국회의원 선거일이면 어느 정당 소속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라는 질문에 '개혁신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뿐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각각 42%로 동률이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상승했다. 이어 녹색정의당 1%, 진보당 1%, 기타 정당 2%,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6%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으로 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들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 100%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혁신당이 통합 이후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된 만큼 큰 파급력을 기대했지만, 여야 지지율의 7분의 1 수준에 머무르며 실망감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저조한 지지율 속 합당에 반대하는 기존 당원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서 탈당자 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파악하고 있지만 밝히진 않겠다"면서 "당원들을 자극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공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용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과 합당 선언을 한 후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탈당 문의가 빗발쳤다.

개혁신당이 합당 전인 지난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도 논란이 됐다.

'통합이나 선거 연대가 불가능한 세력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와 관련해 이준석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서 "우선 절대 이 세력과 합당해선 안 된다고 했을 때 40% 넘게 나온 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향자 원내대표가 같은날 KBS 방송 인터뷰에서 "당원 과반이 이런 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하며 서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혁신당은 선거 보조금 지급 전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는 등 현역 5명을 채워 '꿈수 구태'를 재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역 의원 5석 미만은 3~4000만원 선의 선거 보조금을 받고, 5석 이상이면 6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개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면서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눈앞의 이익만 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개혁신당 최고위에서는 당색을 두고 합당 전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당직자 간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계 '새로운미래' 출신 당직자들이 현재 당색인 '개혁 오렌지'에 새로운미래 당색인 남색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이준석계에선 "이미 합의된 기본 사항조차도 다시 들고 나온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대 등 거점 국립대 9곳 투자 서울대 수준으로”

민주, 교육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으로 저출산, 지방공동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 붕괴도 막고 지역 소멸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게호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이날 오후 충북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교육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9곳의 재정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려 우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과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도 공약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들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 총선 공동정책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합류하기로 한 정당들이 4·10 총선에 내세울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원인 박주민·민병덕 의원,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진보당 정태홍 정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정책 연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책을 제출해 공동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며 "오늘 얘기해보니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 협상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절차도 갖자는 데 합의했다"며 "필요하다면 세

정당이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에도 공동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정당은 오는 19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책 협상 마무리 시한을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민 의원은 "신당 창당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될 것이기에 그전에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본부장은 "각 당이 흩어져 있기보다는 함께 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을 제대로 된 시간 안에 해내자는데 참석자들이 많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비례연합정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홍익표·고민정·김두관 등 10명 단수 공천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서울 양천갑 등 14곳 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단수 공천 10곳, 경선 14곳 등 총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민정(조선·서울 광진을), 최인호(재선·부산 사하갑), 송기현(재선·강원 원주을),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김정호(재선·경남 김해을), 김두

관(재선·경남 양산을) 등 현역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됐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3선의 홍익표 원내대표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부산 연제(이성문), 경기 포천가평(박윤국), 경남 창원의창(김지수) 등 원외 인사가 출마한 곳도 단수 공천 지역구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p) 이상일 때 등 경우에

는 단수 공천이 가능하게 했다.

경선 지역은 서울에서 양천갑(황희·이나영), 서울 양천을(이용선·김수영), 서울 관악갑(유기홍·박민규) 등 3곳이다. 경기 지역은 고양갑(김성화·문명순), 고양병(홍정민·이기현), 안성(최혜영·윤종근), 김포갑(김주영·송지원), 광주갑(이현철·소병훈) 등이다. 강원 원주갑(여준성·원창목) 및 강릉(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병(김연·이정문) 및 보령서천(나소열·구자필·신현성) 등지에서도 경선이 치러진다. /오광록 기자 kroh@

다시, 교육의 본질로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